

볼레괴불나무

과명 인동과
학명 *Lonicera monantha*
일명 くみひょうたんぼく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1986년 7월에 강원도 대관령 남쪽에 위치한 발왕산의 계곡에서 함경북도의 표고 900m에 이르는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늘까치밥나무를 발견한바 있었다. 우리가 남한지역의 심산오지를 좀 더 심도있게 탐색한다면 북한 지역에만 자생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 종들도 남한에서 더 많은 자생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04년 강원도 태백산 준령의 여러종류의 야생화가 핀다는 금대봉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종이 아니어서 조그만 근주를 채집하여 적응시킨 후 수목원 내에 식재하였더니 성장속도도 빠르고 인동이나 괴불나무가 그렇듯이 5월에 흰색으로 피었다가 노란색 꽃으로 변하는데 가지 끝에 모여 피고, 열매는 늦여름에 붉은색에서 가을이 되면 흑색으로 익어 관상 가치가 있겠다 싶어 나무 이름을 알만한 분들께 물어 보았더니 몇몇 분은 이름을 모르겠다 하고, 처음 보는데 수목도감의 내용으로 보면 볼레괴불인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어 검색표, 수목도감을 공부해보니 볼레괴불나무로 판단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볼레피불나무는 수직적으로 표고 2,200m, 수평적으로는 평북, 함남북(백두산)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엽활엽관목으로서 가지 2m에 달하며 가지가 많이 갈라지는 달갈색이고 수(髓)는 백색으로 딱 차있으며 가지에 거센 털이 산생하고 정아는 없으며 측아는 뾰족하다.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 또는 난형으로 길이 4~6cm이며 양끝은 거의 둔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표면은 녹색으로 털이 있으나 없어지고 뒷면은 연한 백색으로 가장자리와 맥위에만 털이 남으며 잎자루는 길이 3~6mm로 긴 털이 있다. 꽃은 5월에 황색으로 피고 잎짚에서 길이 10~15mm의 화경이 나와 1개씩 달리며 화경에 선모가 있고 또는 1개로 넓은 피침형이다. 꽃받침통은 털이 없고 화관은 길이 15~20mm이며 열편은 거의 동형이고 외면에 긴 강모가 있다.

채집시 자생지는 상층에 교목은 거의 없고 관목들만 있는 남서향의 사면이나 토양수분은 적합한 곳에서 자생하고 있었다.

자두나무의 변종으로 열려수, 열여목으로 부른다. 충북과 경기도에 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강원도 일부지역에 관상수로 식재하고 있다.

낙엽활엽관목으로 줄기는 가지가 많고 대 빗자루 모양으로 직립하며 잎은 도피침형 또는 도란형이고 양끝이 뾰족하며 잔 거치가 있다. 꽃은 1~3개 나오며 백색이다. 4월에 꽃이 피고 과실은 결실치 않는다.

은행나무의 피리밋은행, 느티나무의 직립느티나무 처럼 열여목 또한 줄기에 가지가 바짝 붙어 자라서 이색적이다. 특별히 꽃이나 열매는 관상가지가 떨어지나 비짜루처럼 자라는 줄기가 이색적이어서 볼거리이다. 🌳

